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 :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김상숙

청암대학교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Parse's Research Method

Sang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2호 2020년 6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2, June 2020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 :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김상숙

청암대학교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Parse's Research Method

Sang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discover the structure by examining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Methods** : To this end, I appli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Parse's research method, and the research process included dialogical engagement, extraction-synthesis, and heuristic interpretat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2 volunteers who were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or bipolar disorder and using the Y mental rehabilitation center in G City. **Results** : The structure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was,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is pride in despair, and challenges toward the possibility through a bond that acknowledges weakness'. They did not let go of hope while maintaining a state of dignity even in adversity, and they were making relentless efforts to transcend with possibility through the relationship. **Conclusion** : Through this study, the meanings of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the humanbecoming theory were materiali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should understand and approach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from their point of view.

Key words : Hope, Mentally ill persons, Peer group,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희망은 인간의 보편적 삶의 경험으로[1],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개인의 삶을 재창조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에너지로 간주 되어왔다[2].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완치되기보다는 증상의 완화와 악화 또는 재발을 반복하는 등 만성화 과정을 거치고, 반복되는 입원으로 기능의 저하를 가져와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3]. 따라서 이들에게 희망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회복과 관련된 요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내적 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다[4].

정신건강 영역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부터 느끼는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서로 공감해주시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원에 대한 이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5]. 동료지원은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바로 전문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6]. 2013년,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7], 이후 각 지역의 정신재활 시설에서는 동료지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소수기관을 중심으로 자체 양성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료지원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은 적은 인원이고 동료지원가에 대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지 않아 그들의 직업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동료 상담,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사,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하면서 병원 중심 치료 문화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며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에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해왔는데, Jacobson 등[8]은 동료지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입원과 증상을 감소시켜주고 당사자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며, 동료지원가 또한 당사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경

험을 쌓는다고 하였다. Ha[9]의 연구에서도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 강화, 자존감과 자신감의 향상, 문제해결 기술 향상, 사회적 관계 기술 향상, 낙인에 대한 감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스스로의 잠재력에 대한 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n 등[10]은 동료지원가가 정신질환자의 직무로 가능할 것인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직무영역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희망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면서 정신질환자의 희망이 갖는 의미와 본질, 그 영향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왔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및 치료적 관계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희망은 다른 경로의 매개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11,12], Han 등[4]의 연구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희망이 자살사고와의 높은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희망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Park과 Park[13]은 희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간호중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Koh[14]는 정신질환자의 실존적 곤경에서 살아남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희망이며, 정신질환자들은 함께 희망을 발견하고 키워갈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고 해석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희망은 어둠에 묻혀 채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발달 단계와 정신질환의 유형에 따른 환자들의 희망 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정신건강간호사는 환자들의 곤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깃들여 있는 희망을 인식하여, 함께 키워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관점에서 희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Parse의 연구방법은 연구자로 하여금 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소중한 일상생활의 패턴, 희망과 꿈 등이 뒤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실제로 부딪히며 겪게 되는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가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갖는 희망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인간되어감을 이해하기 위한 희망 경험의 구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인간되어감 이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간호사가 동료지원가의 삶 속에 존재하는 희망을 인식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가 경험하는 희망의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접근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동료지원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희망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II .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정신질환

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Parse의 연구방법은 대상자가 기술한 자료를 통해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연구자의 창의적인 추상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접근이며,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 ‘추출-종합(extraction-synthesis)’,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의 세 과정이 포함된다[1,15].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G광역시에 소재한 Y정신재활센터를 이용하면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정신질환을 가지고 동료지원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희망’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고 자진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5명, 여자 7명이었고, 나이는 33세부터 56세 사이이며, 결혼상태는 기혼 3명, 미혼 7명, 이혼이 2명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졸 4명, 대 중퇴 2명, 대 재학 2명, 고졸이 3명이었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으로 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단순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다. 정신과적 진단은 조현병 10명, 양극성장애가 2명이었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nt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Occupation	Diagnosis	Duration of illness (year)	period of activity (mon)
Hyun	Male	33	Single	under graduate	No	Schizophrenia	3	6
Park	Female	52	Divorced	college	No	Schizophrenia	25	30
Jin	Female	38	Married	college	Yes	Bipolar disorder	13	30
Kwon	Male	33	Single	college	No	Schizophrenia	7	42
Oh	Female	56	Married	high school	No	Bipolar disorder	33	42
Kim	Female	34	Single	high school dropout	No	Schizophrenia	14	30
Jung	Female	54	Married	under graduate	Yes	Schizophrenia	27	18
Min	Male	48	Divorced	college dropout	Yes	Schizophrenia	24	30
Choi	Male	40	Single	high school	No	Schizophrenia	22	18
Yun	Female	50	Single	college	Yes	Schizophrenia	30	42
Moon	Male	40	Single	college dropout	No	Schizophrenia	22	6
Lee	Female	49	Single	college	No	Schizophrenia	30	42

유병기간은 3년에서 33년이었으며, 동료지원가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다(Table 1).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34년간 근무를 해오면서 정신건강간호사 1급과 정신전문간호사의 자격을 갖추었고, 현재는 대학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사학위과정 중에 인간되어감 이론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질적 연구 워크숍과 인간되어감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여하면서 Parse의 연구방법을 공부하였다. 또한 인간되어감 이론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Parse의 저서를 번역하여 출간하는 활동 등으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보편적인 경험인 고통이나 희망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희망이 아닐까에 대해 몰두하게 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를 만나기 전에 선이해와 가정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병력 등의 정보 수집은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준비를 하였다.

4. 자료수집 : ‘너와 나의 대화’ 과정

자료수집은 Parse의 연구방법 과정인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한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였으며, 참여자에 따라 2회에서 3회에 걸쳐 만남이 이루어졌고, 1회 시간은 30분에서 150분까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동료지원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희망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에 진정으로 함께 하고자 했다. 대화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였으며, ‘추출-종합’ 과정을 위해 녹음된 모든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하면서 워드프로세서에 직접 기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 G시에 있는 Y정신재활센터의 상위소속기관인 일 수도회 ‘관구 교육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9-1). 또한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 내용의 녹음, 연구가 끝나면 녹취 자료 및 연구와 관련한 모든 필사본의 폐기, 언제든지 참여자의 철회 의사에 수용된다는 권리와 비밀보장 서약 등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소속된 직장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대화하기에 좋은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연구자와 만났으며, 대화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정신재활센터 내에서 이루어졌다.

6. 자료 분석

1) ‘추출-종합’ 과정

연구자는 ‘너와 나의 대화’ 과정을 통한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희망의 경험과 관련 있는 자료에 밑줄을 긋고 대화의 내용에 몰두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희망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를 성찰하였다. 첫째, 각 참여자의 희망 경험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나는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둘째, 녹음되거나 필사된 서술에서 ‘참여자의 언어로 된 에센스’를 추출하고 종합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언어로 된 에센스’를 종합하고 추출하였다. 이 에센스는 연구자가 더 높은 추상화의 단계에서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표현을 개념화한 것이다. 넷째, 각 참여자의 에센스로부터 ‘언어-예술’을 형성하였다. 다섯째, 모든 참여자의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을 추출하고 종합하였다. ‘핵심개념’은 ‘언어-예술’의 중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구로 쓰여진 주요 아이디어로서 이 과정에서 의미론적 일관성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여섯째, ‘핵심개념’을 결합하여 개념화한 진술인 희망 경험의 ‘구조’로 종합하였다.

2) '발견적 해석' 과정

이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의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원리와 개념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구조적 전환(structural transposition)'은 희망 경험의 '구조'를 더 높은 추상적 수준에서 진술하고,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은 '구조'와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연결하였다.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s)'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묘사할 때 희망과 관련된 은유적 문구를 연구자가 선택하여 기술하였으며,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은 희망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변형된 순간을 나타내는 예술 작품으로써 '시'를 선택하였다.

7.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Padgett[16]이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심층면담, 참여 관찰, 국내외 단행본이나 언론자료, 자작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활용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통하여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성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진실되고 타당하게 추출-종합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자 12명 중 10명에게 자신의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체험과 일치하는지 재확인(member checking)을 하였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을 위하여 참여자들을 자주 만났다. 넷째,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가 해석한 것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기법(peer group validation)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을 연구하는 정신간호학 교수 2인에게 참여자의 이야기와 연구자의 '추출-종합' 및 '발견적 해석' 과정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은 후 수정하였다. 다섯째, 감사 가능성(auditability)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 상황, 연구방법론적인 기록, 자료분석 절차, 그리고 개인적 반응에 대한 현장기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추출-종합 과정

추출-종합은 참여자 12명 중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잘 드러낸 3명의 이야기와 추출-종합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1) '윤'의 이야기

제가 30년을 앓았거든요. 급격히 악화되고 회복될까만 서서히 되고.... 정신질환자는 소망을 갖기는 하나 뭔가 급격한 발전이나 변화는 없잖아요? 희망이란 느낌이 참 좋은데 내가 실망을 했어요. 애초에 다 낮고 약을 끊고 싶다는 일반인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완치가 아니라 조금씩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소망을 갖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살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여보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남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취업을 해도 어울리지는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긴장 떨림이 많아서... 나는 어느 공동체에서나 남이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섬겨주고 챙겨주고 동료지원가를 통해 그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비록 환자들 앞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 가정방문 서비스... 물론 수퍼바이저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봉사의 마음 배려의 마음도 갖을 수 있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교육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어요. 제가 가정방문서비스를 했는데... 소망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보다 더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지원가라는 것이 환우사이에 나누는 것이예요. 그런 모습만 봐도 나에게 긍정적인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지원가를 해보야겠다 마음을 갖는 것 같고... 가능성을 갖는 관계가 되어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센스 : '윤'의 언어

- 많은 소망을 갖기는 어려우나 어떻게든 회복하고 취직도 하며 살아가고 싶다.
- 동료지원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다.
- 절망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환우가 나의 모습을 보며 동료지원가를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소망한다.

에센스 : 연구자의 언어

- 역경 속의 자부심
-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긍정적 변화로의 가능성을 향한 의지를 다짐

언어-예술

동료지원가 '윤'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자부심이며,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긍정적 변화로의 가능성을 향한 의지를 다져가는 것이다.

2) '민'의 이야기

희망은 무언가를 태동시키는 씨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열은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 수 있을지도요. 씨앗은 자신의 삶의 미래를 알고 있기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듯 우리네 삶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저도 조화로운 우주처럼...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고 희망이라는 열병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말아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병에 압도당하여 환청이 계속 들려오고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5년 입원을 했는데 입원 중에 어린 딸이 전화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면 딸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눈물) 가족이 고마웠던 게 살다가 좋던 좋지 않던 항상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무기력하고 앞날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병원에서 막 퇴원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어렵פות이 동료지원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시에서 동료지원가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하겠다고 했어요. 보통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지원가는 그나마 고급직종이잖아요? 취직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활동을 하면서 뭔가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연단에 서면 트라우마 받은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회복되어온 과정의 나를 오픈시키면서... 제 자신도 발전해가고 상대방도 발전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는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긴 여정동안 비전을 볼 수 있게끔 경청하고 롤모델이 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에센스 : '민'의 언어

- 희망이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 무언가를 태동시키는 씨앗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 힘을 주는 어린 딸과 동료지원 활동으로 목적의식이 생기고 취직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동료로서 역할 모델이 되어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의미를 찾고 노력해야겠다.

에센스 : 연구자의 언어

- 절망 속에서 태동하는 자부심
-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자아성장을 향해 도전해감

언어-예술

동료지원가 '민'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에서 태동하는 자부심이며,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자아성장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3) '현'의 이야기

희망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절망 속에 또 희망이 있더라고요. 길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버티고 맞서려고 하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병 때문에 힘들어 학교 다니기도 싫고 괴롭혔던 친구가 떠오르고... 그 때 자살 충동도 느꼈었고... 환각도 있었는데 제가 가진 고생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나만치 괴롭겠지 하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저와 반대되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 속에서 소외를 느껴 정상인 아니더라는 생각으로 열등감을 가졌거든요. 저는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함께 하니깐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함께 있다는 자체 만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고 외롭지 않다 생각이 드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삶에서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의 오래가지 못했어요. 동료지원가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돈까지 주니까 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할 수 없는 정보를 준다거나 내 경험을 통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지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필요하지만 컴퓨터도 잘 다루고 발표도 잘하고 관심도 많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도 하니... 그러면서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역량을 잘 발휘하면 좋겠어요. 동료지원가가 정착이 되고 일을 잘하게 된다면 같이 역사를 한번 써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신체장애인 당사자들이 앞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에센스 : '현'의 언어

- 희망이란 절망 속에서도 버티고 맞서려고 하면 보이는 것이다.
- 나와 같이 고생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삶에서 위안이 되고 더 배려할 수 있다.
- 동료지원가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돈도 받으니까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느껴지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사를 써나가고 싶다.

에센스 : 연구자의 언어

- 절망 속의 당당함
- 고생을 유대로 한 공존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당사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도전해감

언어-예술

동료지원가 '현'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의 당당함이며, 고생을 유대로 한 공존 관계로 역량을 발휘하여 당사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도전해가는 것이다.

2. 모든 참여자의 언어-예술

- 1) 동료지원가 '현'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의 당당함이며, 고생을 유대로 한 공존 관계로 역량을 발휘하여 당사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도전해가는 것이다.
- 2) 동료지원가 '박'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충만함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소중한 관계로 자신을 인정하고 존재가치의 회복을 위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 3) 동료지원가 '진'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불확실한 성취감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소중한 관계로 잠재적 가능성을 향해 조심스럽게 노력해가는 것이다.
- 4) 동료지원가 '권'의 희망 경험은 역경 가운데 오는 순간의 충만함이며, 공존 관계에서 드러나는 확신으로 현실과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가는 것이다.
- 5) 동료지원가 '오'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의 포기하지 않는 당당함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소중한 관계로 자아실현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 6) 동료지원가 '김'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의 불확실한 성취감이며,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에서 드러나는 책임감으로 잠재적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 7) 동료지원가 '정'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당당함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로 자아실현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 8) 동료지원가 '민'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에서 태동하는 자부심이며,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자아성장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

- 9) 동료지원가 ‘최’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기적 같은 새로움이며, 존중받는 지지 관계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인내해 가는 것이다.
- 10) 동료지원가 ‘윤’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자부심이며, 약함을 지지하는 유대관계로 긍정적 변화로의 가능성을 향한 의지를 다져가는 것이다.
- 11) 동료지원가 ‘문’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 일상에서 발견되는 당당함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로 자아실현을 향해 노력해가는 것이다.
- 12) 동료지원가 ‘이’의 희망 경험은 절망을 딛고 얻어지는 성취감이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소중한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다.

3. 핵심개념과 구조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에 대한 핵심개념은 ‘절망 속의 자부심’,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 ‘가능성을 향한 도전’으로 모든 참여자의 언어-예술에서 중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3개의 문구를 추출하였다. 이 3개의 핵심개념을 결합하여 개념화한 진술인 구조는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은 절망 속의 자부심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로 밝혀졌다(Table 2).

4.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1) 구조적 전환

구조를 더 높은 추상적 수준으로 진술하는 구조적 전환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은 역경 속의 궁지이며, 한계를 수용하는 공존으로 존재가치의 회복을 위해 분투해가는 것이다’로 해석하였다(Table 2).

2) 개념적 통합

‘구조’와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개념적 통합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은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강화성을 상상화하는

것이다’로 진술하였다. ‘절망 속의 자부심’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의 개념인 ‘상상화’로,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는 두 번째 원리의 개념인 ‘가능-제한’과 ‘연결-분리’로, ‘가능성을 향한 도전’은 세 번째 원리인 ‘강화성’으로 개념적 통합을 하였다(Table 2).

3) 은유적 드러남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에 대한 묘사로 “석류요정과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 동굴로”라는 은유를 참여자의 글에서 떠올렸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개념과 관련지어 희망 경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손전등을 들고 동료의 동굴에 들어갈 거예요/ 석류요정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동료를 찾는다면/ 우린 감싸 안으며 / 손잡고 즐겁게 밖으로 나와요’라는 묘사에서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 동굴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독특하고 알려지지 않은 긍정적 기대에 대한 암묵적-명백한 앎이다. 이는 인간되어감 관점에서 동료지원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그리는 ‘상상화’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석류요정’은 작지만 많은 사랑의 열매를 퍼뜨릴 수 있는 석류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합성어이다. 이는 맥락상 구성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에는 ‘가능-제한’이 동시에 있으며, 석류요정 혹은 어둠 속 동굴의 동료와 가까이 있는 동시에 다른 현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연결-분리’를 조명한다. 또한 동료가 절망이라는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을 때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미래의 행복과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존재하고자 하는 용기의 기반을 나타내므로 ‘강화성’으로 연결하였다. 이 외에 희망 경험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의 은유적 묘사로는 “돌고래가 분수를 품으면서 바다로 전진하듯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나는 태양처럼”, “푸릇푸릇 막 돋아난 연초록 새싹”으로 긍정적인 기대와 가능성이 나타난 반면, 몇 명의 참여자는 “선명하지 않은 우유 빛깔 무지개”, “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 하면 힘든 구름” 등으로 불확실한 현실에 기반한 사고를 하였다(Table 2).

Table 2. Heuristic Interpretation of the Core Concepts

Core Concepts	Structural Transposition	Conceptual Integration
Pride in despair	Dignity in adversity	Imaging
bond that acknowledges weakness	Coexistence accepting limitation	Enabling-limiting Connecting-separating
Challenges toward the possibility	Struggle to retrieve existence value	Powering
Structure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is pride in despair and challenges toward the possibility through a bond that acknowledges weakness.		
Structural Transposition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is dignity in adversity and struggle to retrieve existence value through coexistence accepting limitation.		
Conceptual Integration		
The living experience of hope of peer supporters with mental illness is Imaging the Powering of Enabling-limiting and Connecting-separating.		
Metaphorical Emergings		
"To the dark cave with flashlight along the pomegranate fairy"		
Artistic Expression		

"Be Yourself Making Hope Happen"

When the people in the world are in sleep
Even the dream locked down by darkness in sleep
Do not afraid of dawning that is awakening alone
Be yourself walking towards the stars
Be yourself making hope happen.

Deep in the winter night
Snow falls high
After a long day work
Back in a dark room where even a candle fades away
Be yourself embracing sorrow
Be yourself making hope happen.

The world with no despair is despair
The world with no sorrow is sorrow
When we meet
after a long waiting in the snow
after a long missing in the snow
We shall laugh embracing each other
We shall cry pressing cheeks against each other

Be yourself walking toward the stars
Be yourself making hope happen
Those who walk through the fields of barley
Covered with spring snow
Come
And run
Take this dream
Take this dream.

quoted from "The one that I love" by Jeong Ho-Seung (2014)

4) 예술적 표현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에 대한 예술적 표현으로 연구자는 Jeong[17]의 시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를 선택하여 희망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시는 다른 문학작품의 어느 장르보다도 그 표현에 있어 언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언어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18]. 연구자가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작가의 시 세계가 자신의 나약함과 상황의 압박함을 인식하면서도 사랑과 희망의 실천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자각하고자 압축되고 정화된 형태의 상징적 어법을 고스란히 시구에 담았기 때문이다. 시인은 ‘어둠, 겨울밤, 어둔 방, 눈’ 등의 시어를 통해 부정적이면서 압박한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별, 희망, 사랑, 봄눈, 보리밭길, 꿈’ 등의 대립된 시어를 사용하여,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희망을 만들고 슬픔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꿈을 품는 공간으로, 절망을 딛고 희망찬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절망 속의 자부심’이며, ‘상상화’와 연결하였다.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라는 시구는 고통받는 사람들끼리의 유대를 통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한다. 이는 인간되어감 관점에서 볼 때,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이며, ‘연결-분리’, ‘가능-제한’과 연결하였다. 또한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는 작가가 소중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가시적 되어감을 인정하는 한편 기대하는 가능성을 찾는 비가시적 되어감에 대한 여지를 제공하면서, 희망과 꿈을 지키려는 노력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의 ‘가능성을 향한 도전’이며, ‘강화성’과 연결하였다(Table 2).

IV. 논 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관점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에 대한 견해를 넓히기 위해 본 연구결과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핵심개념은 ‘절망 속의 자부심’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어 왔듯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은 실패해도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를 줄이고 유능한 동료지원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내 자신이 희망이지요. 나도 딛고 일어섰다. 동료들도 얼마든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좌절의 과정을 겪어 왔으나,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 과거보다는 나은 현재를 지각하고 미래에는 더욱 나아져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Koh[14]의 연구에서도 병을 가진 몸을 인식하고 좌절하지만 병을 가진 몸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희망의 역설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몇 명의 참여자는 “잘 잡히지 않은 것”, “기적 같은 것”으로 표현하며 불확실한 현실에 기반한 사고를 하였다. 이는 Parse[19]가 Stephen King의 단편소설이 영화화된 ‘Rita Hayworth와 Shawshank 탈출’의 영화 속 인물 이야기를 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도 희망-희망 없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핵심개념은 ‘역경 속의 궁지’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어 만성화되고 자신감이 많이 상실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자격을 갖춘 모습을 자랑스럽게 기대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곧 희망은 마음 안에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Parse의 이론적 수준에서, 첫 번째 핵심개념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의 개념인 ‘상상화’로 개념적 통합을 이루었다. 무한한 경험을

상상화하는 것은 반성적-전반성적이며, 명백한-암묵적 앎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되어감의 본질적 현상이다[1]. Wang[20]의 나병을 가진 사람의 희망 연구에서는 ‘혼란, 통증, 그리고 고통의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상상하기’를 핵심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상상화로 통합하였다. 반면, Kim과 Lee[21]의 쉼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의 희망 체험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가치화의 개념으로 연결시켰다. 이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인 의미의 구조화에서 각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따라 상상화, 가치화, 언어화라는 의미의 순간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핵심개념은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년을 입원해도 이혼한다는 말을 안하고... 가족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가족도 내가 사람 안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나를 인정해주니까요”, “저 사람도 나만치 괴롭겠지 하면서 동료를 더 배려하게 돼요. 함께 하는 삶에서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였다. 유대관계란 참여자에 따라 가족, 절대자, 치료자, 동료 혹은 정신재활센터와의 연결 혹은 결합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정신질환의 취약성을 가지고 사는 나날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신질환자로 살아가는 힘겨움을 이겨내는 희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보통 인간으로서 똑같이 고생을 받아들이고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괴로움을 감싸 안으면서도 동료와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힘을 접할 때 절망은 풍요로움으로 변한다[22]. 두 번째 핵심개념은 ‘한계를 수용하는 공존’으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과 한계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들이 재발과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계를 수용하고 병을 인정하게 되나 혼자서 아닌 함께 하는 가운데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된다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Parse의 이론적 수준에서, 두 번째 핵심개념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두 번째 원리의 개념인 ‘가능-제한’과 ‘연결-분리’로 개념적 통합을 이루었다. 현재 드러남의 가시적-비가시적 되어감에 있어 맥락상 구성된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

에는 가능-제한이 동시에 존재하며, 개인은 한 번에 모든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다[1]. 참여자들은 동료지원가를 선택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반면, 기초수급대상의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낮은 급여로 경제적인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연결-분리는 참여함-멀리함이다. 그것은 타인, 사고, 사물, 상황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1].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동료지원가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현상은 멀리하게 되고 하나의 단위로 이들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율이 인간되어감의 양상이다. 많은 연구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희망을 고취시킨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Kim과 Lee[23]의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의미 있는 관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희망 증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조현병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한 Park과 Eom[24]의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병의 증상으로 사람들과 단절되고 멀어지며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고립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지지체계가 어두운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주는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핵심개념은 ‘가능성을 향한 도전’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소심해서 발표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활동을 하면서 차츰 변화가 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장점들이 하나씩... 그냥 되는 것은 없잖아요? 자기관리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나도 보람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실패도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박수도 쳐주고 거기서 힘을 얻고 도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동료지원가로 독립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동료들의 역할 모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면으로 맞선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 핵심개념은 ‘존재가치의 회복을 위한 분투’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되찾아

자기 자신을 단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아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참여자들은 학업, 결혼, 취업 등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좌절을 경험하는 삶의 불확실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며, 존재가치의 회복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Parse의 이론적 수준에서, 세 번째 핵심개념은 인간되어감 이론의 세 번째 원리의 개념인 ‘강화성’으로 개념적 통합을 이루었다. 강화성은 비존재의 측면에서 존재 확인-미확인, 추진-저항 과정이다. 또한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저항하는 지향과 행위로 나타난다[1]. 동료지원가로서의 가능성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존재-비존재를 확인하는 동시에 확인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분투하였다. Park과 Eom[24]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하듯이 그들은 증상과의 힘겨운 투쟁, 그리고 그 증상의 힘에 압도되어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일상의 힘겨움 속에서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감정,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능성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면서 희망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드러남의 가시적-비가시적 되어감이 명백하지 않은 채 동료지원가로서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위협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강화성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초월하는 본질이며, 인간되어감에 있어 순간순간의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상이다.

Parse[26]는 10명의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의 희망 경험 연구에서 ‘확대된 견해의 다른 관점을 펼치면서 일상의 편함-불편함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화하면서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상상화와 강화성으로 개념적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계의 중요성이 주요 핵심으로 드러났다. 현상학적 접근으로 시도한 Koh[14]의 연구에서 희망은 존재의 형태를 회복하고 의미로 채우려는 지향으로 몸, 시간, 공

간, 타자의 긴밀하게 엮어진 체험구조로 요약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인간되어감 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감’의 건강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과의 참여는 앞으로 나아감을 강화하는 확대된 견해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적으로 Parse의 이론적 개념들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동료지원가라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약함을 서로 인정해주는 유대관계가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여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희망 경험의 구조는 ‘절망 속의 자부심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유대관계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가는 것이다’로 밝혀졌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희망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가는지, 인간-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율동적인 관계 패턴을 공동창조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가능성을 가진 채 공동초월해 가는지를 보여주어 인간되어감 이론의 과학화와 예술적 삶에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관점으로 그들의 희망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삶의 순간마다 깃들여져 있는 가능성을 향한 그들의 도전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지원가의 관점에서 희망을 이해하고, 희망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정신재활센터의 동료지원가로 임의 선택이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동료지원가가 참여한 연구가 반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희망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희망 증진 전략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실무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셋째,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서비스의 주체가 되도록 동료지원가의 양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Parse RR. The humanbecoming paradigm: a transformational worldview. Pittsburgh, Pennsylvania: A Discovery International Publication; 2014. p.25-105.
2. Kim DS, Moon WH, Ahn SY, Oh HS, Kwon KH, Park MK, et al.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concerning functional relationships of explanatory variables to hop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5):673-684. <https://doi.org/10.4040/jkan.2004.34.5.673>.
3. Anthony W, Cohen M, Farkas M.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Boston: Center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1990. Cited by Han KS, Park YH, Im HS, Ju GY, Bae MH, Kang HC. Hop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hronic mental illnes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0;19(2):205-211. <https://doi.org/10.12934/jkpmhn.2010.19.2.205>.
4. Han KS, Park YH, Im HS, Ju GY, Bae MH, Kang HC. Hope,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hronic mental illnes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0;19(2): 205-211. <https://doi.org/10.12934/jkpmhn.2010.19.2.205>.
5. Simpson A, Quigley J, Henry SJ, Hall C. Evaluating the selection, training, and support of peer support workers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2014;52(1):31-40. <https://doi.org/10.3928/02793695-20131126-03>.
6. Im GH. The Effectiveness of the peer counseling program for person with severely disabled [master's thesis]. Bucheon: Catholic University; 2003; p.1-104.
7. Kim HB, Na EY, Lee SY, Sohn JH, Cho SJ. A Comparative Study on Peer Support Activities in the Mental Service Area -Focused on Deriving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Peer Support Project in Seoul-. *The Mental Health*. 2018;8:40-52.
8. Jacobson N, Trojanowski L, Dewa CS. What do peer support workers do? A job description.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12;12(1):205. <https://doi.org/10.1186/1472-6963-12-205>.
9. Ha KH. A Study on the Peer Support Experienc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2;40(3):175-201.
10. Shin JH, Shin YH, Lee MS.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The Mental Health*. 2013;4:35-46.
11. Hyun MS, Park EY, Kim YH, Kim YU, Cho MS. Mediating effect of therapeutic relationship with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the relation between hope and recovery of community dwelling patients with a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4;23(3):156-164.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3.156>.
12. Shin SH, Hwang JH.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therapeutic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social functions and mental health recovery of community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19;30(1): 69-78. <https://doi.org/10.12799/jkachn.2019.30.1.69>.
13. Park JH, Park HS. Hope enhancement program for increased hope,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for mentally ill persons in day hospital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7;26(3):260-270.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3.260>.
14. Koh MH. Experiences of hope in cl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005;35(3):555-564. <https://doi.org/10.4040/jkan.2005.35.3.555>.
15. Parse RR.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emerging scienc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2011; 24(1):11-5. <https://doi.org/10.1177/08943184103389066>.
16. Padget D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Yu TG, translator. Paju: Nanam; 2001.
17. Jeong HS. The One that I love. 10th ed. Paju: Yolimwon; 2014. p.70-71.
18. Choi MS. Literature and writing. Seoul: Prunsasang; 2013. p.259.
19. Parse RR. Hope in "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 A human becoming hermeneutic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2007;20:148-154. <https://doi.org/10.1177/0894318407299567>.
20. Wang CE. He-Bung: Hope for persons living with leprosy in Taiwan. In R. R. Parse. Hope: An International human becoming perspective. Sudbury, MA: Jones & Bartlett. 1999:143-162. Cited by Parse RR. The humanbecoming paradigm: a transformational worldview. Pittsburgh, Pennsylvania: A Discovery International Publication; 2014. p. 25-105.
21. Kim EH, Lee CS.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in a group home: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0;19(1): 44-56. <https://doi.org/10.12934/jkpmhn.2010.19.1.44>.
22. Saito M. 脳む力:べてるの家の人びと. 9th ed. Song TW, translator. Seoul: Samin Books; 2006. p.260-282.
23. Kim MY, LEE IJ. The effect of program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hop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2; 40(1):263-291.
24. Park MW, Eom TW.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11):521-533. <https://doi.org/10.14400/JDC.2019.16.11.521>.
25. Higgins A, Mcbennett P. The petals of recovery in a mental health context. *British Journal of Nursing*. 2007;16(14):852-6. <https://doi.org/10.12968/bjon.2007.16.14.24322>.
26. Parse RR. Parse's research methodology with an illust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hope. *Nursing Science Quarterly*. 1990;3:9-17. <https://doi.org/10.1177/089431849000300106>.